

중소기업 적합업종 45개 9월 확정

동반성장위, 10월까지 대부분 정리 ... 두부 · 콩나물 · 고추장은 버티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품목 중 45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1차 적합업종 품목 선정결과를 9월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부, 콩나물, 고추장 등은 아직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9월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전망이다.

정영태 사무총장은 9월16일 8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적합업종 신청품목 중 사회적 관심이 큰 45개 품목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중”이라며 “결론이 나오는 적합업종 품목을 9월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적합업종 선정 신청이 들어온 품목 총 234개 중 자진철수, 반려요청 등으로 남은 검토 대상은 218개며, 대기업 미진입 품목이 84개, 진입 품목은 134개로 나타나고 있다. 정영태 사무총장은 대기업 진입품목 중 45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5개 품목 중 갈등이 큰 고추장, 두부 등은 조정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아직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태여서 9월 결론이 나오기는 힘든 상태이다.

정영태 사무총장은 “일부 업종은 합의문을 가다듬는 수준으로 합의가 상당히 진척됐다”며 1차 발표 대상 이외의 품목들도 10월이면 대략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지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협력기업 2700사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를 마치고 10월 1차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16>